

## 명당장부도(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비장도(脾臟圖) 30종의 비교\*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교수  
조학준\*\*

### Comparison of 30 Diagrams of Spleen originated from *Ming Tang Zang Fu Tu*(明堂臟腑圖)\*

Jo Hak-jun\*\*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To clarify the construction, changes, and contents of the diagrams of spleen through comparison of 30 different diagrams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

**Methods** : The diagrams were analyzed in whole shape, ratio between width and height, shape of the lower part, and concavo-convex of the middle part, then match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tion diagram. The contents of the diagram of the spleen were newly interpreted with comparison to the classical texts.

**Results** : The whole shape is described to be a long sword, long stick, bottle gourd, western pear, sole of feet. The height to width ratio was mostly above 4.0:1, but those listed in the 『Bianquemaishunaning』 and 『Hehensancaituhui』 were 1.9:1~1.0:1, most similar to the numbers described in the 『Nanjing』. The shape of the lower part was narrow and sharp, narrow and flat or wide and flat. To analyze through affiliation characteristic, properties of other affiliations could be found. In comparison to classical texts, the diagrams could be found to be affected by 『Nanjing』 and Wangbing's annotations. The diagrams of the spleen should be composed of the spleen, the cord of spleen, and Sangao(散膏); but those which distinguish the spleen and the cord of spleen are twelve. The description of its shape as being similar to sword or sickle seems to come from Lichan's misunderstanding of the diagram in 『Zhenjiujuying』. Those that mention Sangao are merely two and their opinion on the position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oth did not identify it with the pancreas.

**Conclusions** : In the process of the diagrams differentiating into 30 they were affected by the classical texts. The various changes seem to come from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composition of the diagram of the spleen.

**Key words** : *Ming Tang Zang Fu Tu*(明堂臟腑圖), diagram of spleen, spleen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Corresponding Author: Jo Hak-j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65,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82-43-649-1347. Fax: +82-43-649-1702. E-mail: palm01@hanmail.net

Received(January 18, 2020), Revised(February 3, 2020), Accepted(February 5, 2020)

## 서론

장부도(臟腑圖)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장부총도(臟腑總圖)와 장부분도(臟腑分圖)로 구분할<sup>1)</sup> 경우, ‘장부분도’는 하나의 장(臟) 또는 부(腑)를 한 폭에 나타낸 그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금란순경(金蘭循經)』(1303)에 명당장부도가 본래 실려 있지만 전해오지 않다가<sup>2)</sup> 명대(明代) 『침구취영(鍼灸聚英)』을 통해 장부전도와 장부분도가 처음 전하였으<sup>3)</sup>, 그 후 다른 서적에서 그 그림을 인용함으로써 여러 계통의 장부분도로 분화되었다.

이와 같이 장부도의 연원을 고려하면 『침구취영』에서 기원한 장부분도를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장부분도’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중 비장도(脾臟圖)는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비장도’로 부를 수 있다.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장부분도에 대해 일찍이 황룡상<sup>4)</sup>은 4계열로 나누어 14종의 서적을 처음 분류하였고, 趙<sup>5)</sup>(6)7)8)는 29종으로 확대·분류하였고,

이 등<sup>9)</sup>은 『三才圖會』, 『類經圖翼』의 臟腑分圖 12폭을 비교하였다.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명당도(明堂圖)” 원류간고(源流簡考)<sup>10)</sup>, 오장도고(五臟圖考)<sup>11)</sup> 등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장부분도는 다루지는 않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간(肝), 폐(肺), 심(心), 신(腎)의 장부분도에서 다양한 변이(變異)가 나타나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여러 문헌에 실린 비장도를 대략 비교하면, 비(脾)의 장부분도, 즉 비장도(脾臟圖)는 다른 4장(臟)의 장부분도에 비해 변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다수의 비장도를 세밀히 살펴본 결과, 비장의 형태, 비장도 내의 구성물에 대한 인식이 미묘하게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연구 당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장부분도가 있는 서적 30종<sup>12)</sup>을 수집하고 나서 황룡상의 기준에 따라 4가지 계열로 분류한 그 결과에서 얻은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비장도 30종에 대해 4가지 형태인자, 즉 전체 형태, 중횡비, 하단의 모양, 중간 부위의 요철로 나누어 동일 계열에 따라 나타나는 변이를 비교하며, 비장도에 영향을 준 문헌과 서로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비장도 내 구성물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 자료 및 연구대상

본 논문에서 다룬 그림은, 집필 당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국과 일본의 장부분도를 대상(황룡상의 서적에서 제시한 장부분도에 추가로 수집함)으로 한정하였는데, 해당 서적 30종은 표 1과 같다.

복수 판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판연도가 빠른 판본을 사용하였다<sup>13)</sup>. 다만 오문병(吳文炳)의 『침구대

1) 한봉재. 동의보감의 圖像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6.  
 2) 침구서적 중 하나로서 『금란순경취혈도해(金蘭循經取穴圖解)』라고도 한다. 원대(元代) 홀태(忽泰)가 짓고 그 아들 광제(光濟)가 주석하여 1302년에 간행되었다. 『침구취영(鍼灸聚英)』에 의하면 이 책의 첫머리에 장부(臟腑) 전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 안에 手足三陰三陽經脈의 주행과 소속을 기술하고 있고, 이어서 14經脈의 流注로 각각 주석하여 그 뒤에 배열하였다고 하였다. 원서는 전해져 오지 않는다.  
 3)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靑島出版社. 2003. p.30. “현재 전해 오는 明堂圖 중에 최초는 元代의 正人, 伏人, 側人의 三人明堂圖이다. 그 臟腑圖는 臟腑明堂圖라고 명명하고 側人臟腑總圖에 속하는데, 北宋 楊介의 存眞圖 중 正面臟腑圖, 背面臟腑圖를 하나의 臟腑總圖로 합성한 것이다. 醫家들이 五臟六腑를 나누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明代 중엽 高武의 『鍼灸聚英』에서 가장 처음 나타난다.”  
 4)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靑島出版社. 2003. p.30.  
 5)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의 비교. 대한한의학회지. 2016. 29(2). pp.31-54.  
 6)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肺臟圖 29종의 비교. 한국 의사학회지. 2016. 29(1). pp.11-31.  
 7)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의 비교. 대한한의학회지. 2017. 30(3). pp.55-76.  
 8) 조학준. 腎臟圖의 형태요소와 그 變異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8. 31(1). pp.23-42.

9) 이명철, 박경남, 맹웅재.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 臟腑圖에 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06. 20(2). pp.149-168.  
 10) 潘藩, 郭父, 王东强. “明堂圖”源流簡考. 針灸臨床杂志. 2008. 24(5). pp.1-4.  
 11)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 24(2). pp.68-66.  
 12) 비장도를 연구하기 이전에는 29종을 다루었으나, 최근에 四庫未收書輯刊 v.4-24에서 熊慶芬의 『扁鵲脈書難經』을 발굴하였기에 본 연구의 자료대상으로 포함하였다.  
 13) 다만 『鍼灸大成』은 續修四庫全書 판본이 더 오래되었으나 대성문화사에서 간행한 판본의 그림과 본질적으로 동일하

성(鍼灸大成)』(1605)은 국내에서 수집하지 못하여 제외하였으며, 『의방유취』와 『동의보감』은 명당장부도와의 상관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제외하였다.

기존에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장부본도 29종을 황룡상의 기준(표 2)에 따라 『침구취영』, 『영추주증

발미』, 『유경도익』, 『침구취영』의 4가지 계열로 분류한 바 있었으며, 최근에 발굴한 옹경홀(熊慶劬)의 『편작맥서난경(扁鵲脈書難經)』은 그 특징을 고려할 때 『침구취영』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른 비장도 30종(그림 7~10)에 대한 계열분류는 표 3과 같다.

표 1. 비장도 30종의 원서

서명	저자	최초간행연도	서명	저자	최초간행연도
鍼灸聚英	高武	1529	古今醫統大全	徐春甫	1560
鍼灸原樞	吳嘉言	1563	靈樞註證發微	馬蒔	1606
鍼灸大成	楊繼洲	1601	醫家赤帙益辨全書	吳文炳	1605 전후
三才圖會	王圻	1606	經絡考	張三錫	1609
鍼方六集	吳昆	1618	頤生微論	李仲梓	1618
福壽丹書	龔居中	1624	類經圖翼	張介賓	1624
經絡滙編	翟良	1628	丹臺玉案	孫文胤	1636
醫宗必讀	李仲梓	1636	藏府指掌圖書	施沛	明代
醫學原始	王宏翰	明代	藏府證治圖說人鏡經	錢雷	1662
身經通考	李潔	清代	(新編)鍼灸要法指南	岩田利齋	1686, 日本
鍼灸拔萃大成	岡本一抱	1699, 日本	和漢三才圖會	寺島良安	1712, 日本
醫部全錄	陳夢雷	1725	醫宗金鑑	吳謙	1742
鍼灸重寶記	本郷正豊	1749	瘍醫大全	顧世澄	1760
扁鵲脈書難經	熊慶劬	1817	經脈圖考	陳惠疇	1868
傳悟靈濟錄	張衍恩	清代	經絡相法	俞培林, 滕千里	清代

표 2. 명당장부도(明堂臟腑圖)의 기원(黃龍祥의 기준)

鍼灸聚英 계열	鍼灸聚英, 古今醫統大全, 楊繼洲의 鍼灸大成, 吳文炳의 鍼灸大成, 鍼方六集
靈樞註證發微 계열	靈樞註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
類經圖翼 계열	類經圖翼,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經絡相法, 傳悟靈濟錄, 經脈圖考
鍼灸原樞 계열	鍼灸原樞

표 3. 장부도(臟腑圖) 30종의 분류(16종 추가)

분류		소속 서적	종수
明堂 臟腑 圖기 원	鍼灸聚英 계열	鍼灸聚英, 古今醫統大全, 楊繼洲의 鍼灸大成, 醫家赤帙益辨全書, 鍼方六集, 頤生微論, 福壽丹書, 丹臺玉案, 藏府證治圖說人鏡經, 扁鵲脈書難經, 身經通考	11
	靈樞註證發微 계열	靈樞註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 和漢三才圖會, 醫部全錄	5
	類經圖翼 계열	類經圖翼, 經絡滙編,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新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鍼灸重寶記, 瘍醫大全, 傳悟靈濟錄, 經脈圖考, 經絡相法	13
	鍼灸原樞 계열	鍼灸原樞	1
합계			30

며 대성문화사 출판본의 그림이 더욱 선명하므로 대성문화사 출판본을 사용하였다.

## 본론

### 1. 비장도 30종의 비교

비장(脾臟, 지라, spleen)은 복강 내 좌측상부에 위치하며 위저부와 횡격막에 접하고, 외형은 삼각형 또는 난원형에 가깝고, 무게 약 170g이며, 평균 길이 12cm 폭 5cm, 두께 3cm이다<sup>14)</sup>.

췌장(胰臟, 이자, pancreas)은 제1~2요추 높이에서 척주 전면을 가로질러 후복벽에 접촉하고 있으며, 전체 길이 12~15cm, 폭은 약 5cm, 두께는 약 2cm, 무게 70g 정도의 편평한 실질 장기이며<sup>15)</sup>, 회색 또는 검은색을 띠고 있고 십이지장에서 가까운 순서로 췌두(이자머리), 췌경(이자목), 체체(이자몸통), 췌미(이자꼬리) 네 부분으로 나뉜다.<sup>16)</sup>

비장도 30종(그림 7~10)은 명당장부도로부터 기원하여 대부분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비장도 30종에 대해 전체 형태, 중횡비, 하단의 모양, 중간 부위의 요철 등 4가지 형태인자로 세분하여 분석,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체 형태

비장도 30종의 전체 형태를 분류하면, 긴 갈(뾰족한 하단), 긴 막대기(등근 하단), 가늘고 길쭉한 조롱박(중간 부위가 잘록함), 서양배(중간 부위가 볼록함), 발바닥(상단과 하단이 비대칭) 모양, 기타 등이 있다. 비장의 전체 형태를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비장도 30종에서 비장의 전체 형태와 그 변이(變異)

전체 형태 계열	긴 갈	긴 막대기	조롱박	서양배	발바닥	장부전도 발췌
鍼灸聚英	鍼灸聚英, 楊繼洲의 鍼灸大成, 鍼方六集,	古今醫統大全, 醫家赤鍼 益辨全書, 頤生微論, 福壽 丹書, 丹臺玉案, 身經通考	-	扁鵲脈書 難經	-	臟腑證治圖 說人鏡經
靈樞註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 醫 部全錄	-	靈樞註證 發微	和漢三才 圖會	-	-
類經圖翼		類經圖翼, 經絡滙編, 醫宗 必讀, 藏府指掌圖書, (新 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 萃大成, 醫宗金鑑, 瘍醫大 全	傳悟靈濟 錄, 經脈 圖考	-	鍼灸重寶記, 經絡相法	醫學原始
鍼灸原樞	-	鍼灸原樞	-	-	-	-
개수	6종	15종	3종	2종	2종	2종

14) 노민희 외 4인. 인체해부학. 서울. 고문사. 1991. p.366.  
 15) 노민희 외 4인. 인체해부학. 서울. 고문사. 1991. p.243.  
 16)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NAVER. [cited at August 15, 2019]. Available from: URL: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606&cid=51006&categoryId=51006>

비장의 전체 형태가 긴 갈 또는 긴 막대기, 가늘고 길쭉한 조롱박 등으로 묘사된 특징은 『침구취영』에서 발견된 뒤로 『장부증치도설인경경(臟腑證治圖說人鏡經)』,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의학원

시(醫學原始)』, 『침구중보기(鍼灸重寶記)』를 제외한 모든 그림에서 발견되고 있다. 드물게는 서양배(『화한삼재도회』, 『편작맥서난경(扁鵲脈書難經)』) 또는 발바닥(『침구중보기』, 『경락상법(經絡相法)』) 모양 등으로도 묘사되어 있다. 『장부증치도설인경경』, 『의학원시』에서는 장부전도 중 비장만 묘사되어 있다. 특히 『편작맥서난경』에는 상하가 거꾸로 된 서양배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표 4 참고)

계열분류를 고려하여 비장의 전체 형태를 다시 비교하면, 동일 계열 비장도라도 다른 계열에서 나타나는 전체 형태의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침구취영』에서 긴 칼(뽀죽한 하단)로 묘사된 특징이 『고금의통대전(古今醫統大全)』, 『의가적치익변전서(醫家赤軾益辨全書)』, 『이생미론(頤生微論)』, 『복수단서(福壽丹書)』, 『단대옥안(丹臺玉案)』, 『신경통고(身經通考)』 등에서는 다른 특징으로 변형되어 있다.

(2) 종횡비

비장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비장도 자체가 실제 크기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비장의 길이(종)와 너비(횡)를 ‘길이’로 비교하는 것보다 ‘비율’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장도 30종의 종횡비를 계산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종횡비는 4.0:1 이상, 4.0:1 미만 3.0:1 이상, 3.0:1 미만 2.0:1 이상, 2.0:1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참고로 4.0:1, 3.0:1, 2.0:1, 1.0:1로 구분한 이유는 편의상 기준이며 특별한 의도는 없다.

장부전도로부터 기원한 『장부증치도설인경경』, 『의학원시』를 제외하고, 비장도의 종횡비가 4.0:1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9:1 ~ 3.0:1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부지장도서(藏府指掌圖書)』, 『침구발취대성(鍼灸拔萃大成)』, 『의종금감(醫宗金鑑)』, 『전오령제록(傳悟靈濟錄)』이 있고, 2.9:1 ~ 2.0:1에 해당하는 경우는 『침구중보기』, 『경락상법』이 있고, 1.9:1 ~ 1.0:1에 해당하는 경우는 『편작맥서난경』, 『화한삼재도회』가 있다.(표 5 참고)

『난경』 「42년」(길이는 5촌, 너비는 3촌)<sup>17)</sup>을 근거로 비장도의 종횡비를 구하면 대략 1.7:1인데, 이 값에 가장 가깝게 묘사된 그림은 『편작맥서난경』의 비장도임(1.6:1)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난경』 「42년」의 내용과 달리 비장도의 종횡비가 4.0:1 이상인 경우가 많은 이유는 비장도가 비장 자체만 묘사한 것이 아니라 비장과 비계(脾系)까지 함께 묘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설명은 논문 뒷부분에서 밝히도록 한다.

표 5. 비장도 30종에서 비장도의 종횡비

종횡비 계열	6.0:1 ~ 4.0:1	3.9:1 ~ 3.0:1	2.9:1 ~ 2.0:1	1.9:1 ~ 1.0:1	장부전도 발취
鍼灸聚英	鍼灸聚英, 古今醫統大全, 楊繼洲의 鍼灸大成, 醫家赤軾益辨全書, 鍼方六集, 頤生微論, 福壽丹書, 丹臺玉案, 身經通考	-	-	扁鵲脈書難經	臟腑證治圖 說人鏡經,
靈樞註證發微	靈樞註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 醫部全錄	-	-	和漢三才圖會	-
類經圖翼	類經圖翼, 經絡滙編, 醫宗必讀, (新編)鍼灸要法指南, 瘍醫大全, 經脈圖考	藏府指掌圖書,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傳悟靈濟錄	鍼灸重寶記, 經絡相法	-	醫學原始
鍼灸原樞	鍼灸原樞	-	-	-	-
개수	20종	4종	2종	2종	2종

17) 扁鵲(秦越人) 撰. 王九思 등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p.204. “脾重二斤三兩, 扁廣三寸, 長五寸, 有散膏半斤, 主表血, 溫五臟, 主藏意.”

계열분류를 고려하여 비장도의 중횡비를 다시 비교하면, 『침구취영』 계열 중 『편작맥서난경』과 『영추주증발미(靈樞註證發微)』 계열 중 『화한삼재도회』는 동일 계열의 특성을 따르지 않았고, 『유경도익』 계열의 경우 비장도의 중횡비에 대한 변이가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3) 하단의 모양

비장도 30종에서 비장 하단의 모양이 좁고 예리하거나 좁고 평평하거나 넓고 평평하게 표현되는 등 변이가 다양함을 발견하였다. 비장 하단의 모양을 분류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비장의 하단을 좁고 예리하게 표현한 특징은 『침구취영』에서 발견된 뒤로부터 30종 중 7종(『침구취영』 포함)뿐이다.(표 6 참고)

계열분류를 고려하여 비장 하단의 모양을 다시 비교하면, 『침구취영』 계열 중 『편작맥서난경』과, 『영추주증발미』 계열 중 『삼재도회(三才圖會)』, 『경락고(經絡考)』, 『의부전록(醫部全錄)』, 『화한삼재도회』와, 『유경도익』 계열 중 『경맥도고(經脈圖考)』가 동일 계열의 특성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4) 중간 부위의 요철

비장도 30종에서 비장도의 중간 부위가 평평하거나 오목하거나 볼록한 등 3가지 변이가 생겼음을 발견하였다. 비장도 중간 부위의 요철로 분류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비장도 28종(장부전도로부터 기원한 『장부증치도 설인경경』, 『의학원시』 제외) 중에서 비장도의 중간 부위가 평평하게 표현된 서적은 16종(『침구취영』 포함)이며, 오목하게 표현된 서적은 『침방육집(鍼方六集)』, 『복수단서(福壽丹書)』, 『영추주증발미』, 『침구발체대성』, 『의중금감』, 『침구중보기』, 『경락상법』, 『전오령제록(傳悟靈濟錄)』, 『경맥도고』, 『침구원추(鍼灸原樞)』 등 10종이며, 볼록하게 표현된 서적은 『편작맥서난경』, 『화한삼재도회』 등 2종이다.(표 7 참고) 『침방육집』, 『복수단서』에서 묘사된 중간 부위는 오목한 정도가 다른 그림에 비해 뚜렷하지는 않다.

계열분류를 고려하여 다시 비장도의 중간 부위를 비교하면, 『침구취영』 계열 중 『침방육집』, 『복수단서』, 『편작맥서난경』과, 『영추주증발미』 계열 중 『삼재도회』, 『경락고』, 『의부전록』, 『화한삼재도회』와, 『유경도익』 계열 중 『침구발체대성』, 『의중금감』, 『침구중보기』, 『경락상법』, 『전오령제록』, 『경맥도고』가 동일 계열의 특성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6. 비장도 30종에서 비장 하단의 모양

하단의 모양 계열	좁고 예리함	좁고 평평함	넓고 평평함	장부전도 발체
鍼灸聚英	鍼灸聚英, 楊繼洲의 鍼灸大成, 鍼方六集	古今醫統大全, 醫家赤帙益辨全書, 頤生微論, 福壽丹書, 丹臺玉案, 身經通考	扁鵲脈書難經	臟腑證治圖說人鏡經
靈樞註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 醫部全錄	靈樞註證發微	和漢三才圖會	-
類經圖翼	經脈圖考	類經圖翼, 經絡匯編,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新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鍼灸重寶記, 瘍醫大全, 傳悟靈濟錄, 經絡相法	-	醫學原始
鍼灸原樞	-	鍼灸原樞	-	-
개수	7종	19종	2종	2종

표 7. 비장도 30종에서 중간 부위의 요철

중간 부위의 요철 계열	평평함	오목함	볼록함	장부진도 발체
鍼灸聚英	鍼灸聚英, 古今醫統大全, 楊繼洲의 鍼灸大成, 醫家亦職益辨全書, 頤生微論, 丹臺玉案, 身經通考	鍼方六集, 福壽丹書	扁鵲脈書難經	臟腑證治圖說人鏡經,
靈樞註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 醫部全錄	靈樞註證發微	和漢三才圖會	-
類經圖翼	類經圖翼, 經絡滙編,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新編)鍼灸要法指南, 瘍醫大全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鍼灸重寶記, 傳悟靈濟錄, 經脈圖考, 經絡相法		醫學原始
鍼灸原樞	-	鍼灸原樞		-
개수	16종	10종	2종	2종

## 2. 문헌에 나타난 비장의 형태와 길이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비장도 30종은 『침구취영』으로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되었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다양함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당시 의가(醫家) 또는 화공(畫工)은 비장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었다. 그렇다면 『침구취영』의 비장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비장의 모양을 변형한 까닭이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비장도 30종에 나타난 비장도의 변이에 대한 근거를 찾고자, 비장의 크기, 무게, 형태 등을 언급한 여러 문헌을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비장에 대해 『소문』 유편(遺篇)인 「자법론(刺法論)」에서 “비장은 간의(諫議)<sup>18</sup>의 소임이니, 편협하지 않은 사고가 그곳에서 나온다.”<sup>19</sup>, 「영란비전론(靈蘭秘典論)」에서 “비위는 창고와 같은 소임이니, 오미(五味)가 그곳에서 나온다.”<sup>20</sup>고 하였다. 그러나 비장의 형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난경』 42년에서 “비장의 무게는 2근 3량, 너비는 3촌, 길이는 5촌이며, 산고(散膏) 반 근이 있다. 혈액을 감싸는 것을 주관하고 오장을 따뜻하게 하고

의(意)를 저장하는 것을 주관한다.”<sup>21</sup>고 하였다. 『난경』에서 비록 비장의 너비와 길이를 언급했으나 형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으며, 비장의 부속물로 ‘산고(散膏)’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왕빙(王冰)은 『소문』 「오운행대론(五運行大論)」에서 “재장위비(在藏爲脾)”에 대해 “형상은 말발굽을 닮고 안으로 위완(胃脘)을 싸고 있어서 토(土)의 형상을 닮았다.”<sup>22</sup>고 주석(注釋)하여, 비장의 형태(말발굽을 닮음)를 처음 언급하였다.

이교(李杲)는 『비위론(脾胃論)』(13세기)에서 “그 비장의 길이는 1척이고, 태창(太倉)을 가리고 있는데, 태창이란 위(胃)의 상구(上口)이다.”<sup>23</sup>라고 하였는데, 비장의 길이가 5촌이 아니라 두 배인 1척이라고 하였다. 『황정경(黃庭經)』의 “비장의 길이는 1척이고, 태창(太倉)을 가리고 있다.”<sup>24</sup>는 말에 근거하여 비장의 길이가 1척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추측할

21) 扁鵲(秦越人) 撰. 王九思 등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p.204. “脾重二斤三兩, 扁廣三寸, 長五寸, 有散膏半斤, 主裹血, 溫五臟, 主藏意.”

22)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13. “形象馬蹄, 內包胃脘, 象土形也.”

23) 李杲. 脾胃論(李東垣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7. “其脾長一尺, 掩太倉, 太倉者, 胃之上口也.”

24) 梁丘子 撰. 施博爾 原編. 修真十書黃庭經內景玉經註(道藏 vol. 4). 北京. 文物出版社. 文物出版社. 1988. p.844. “脾長一尺, 掩太倉”

18) 임금에게 간언하여 정치를 심의하는 것.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86. “脾爲諫議之官, 知周出焉.”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4. “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

수 있다.

이천(李穡)은 『의학입문』 「장부조분」(1575)에서 “납작하여 말발굽과 비슷하고 너비는 3촌이고 길이는 5촌이다(모양은 납작하여 말발굽과 비슷하고 또는 칼, 낫[刀鎌]과 같다). 막으로 위(胃)와 이어져 있고 무게는 2근 3량이며, 산고(散膏)는 반 근이다.”<sup>25)</sup>, “비장은 중완(中脘) 부위 1촌 2푼에 위치한다. 위로는 심장에서 3촌 6푼 떨어져 있고, 아래로는 신장 3촌 6푼 떨어져 있고, 가운데 1촌 2푼 부위를 황정(黃庭)이라고 이름한다.”<sup>26)</sup>고 하였다. 이천은 비장의 형태가 ‘말발굽을 닮았다’는 왕빙의 학설을 계승하면서도, ‘칼, 낫[刀鎌]과도 닮았다’는 설명을 처음 덧붙였다. 특히 그는 『난경』 「42난」 「脾重二斤三兩, 扁廣三寸, 長五寸」의 ‘편(扁)자’에 주목하여 비장의 형태가 납작하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비장과 위가 막으로 닿아있다는 점과 비장의 위치가 심장과 신장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로부터 도가(道家)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산고(散膏)’의 존재와 기능을 비장과 함께 언급하였으나 이천이 산고(散膏)를 ‘비장의 부속물’로 인식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장항(章潢)의 『도서편(圖書編)』 「오장육부(五臟六腑)」(1613)에서 “『황제서(黃帝書)』에 이르되 비장의 형상은 말발굽을 닮고 안으로 위완(胃脘)을 싸고 있어서 토(土)의 형상을 닮았다.”<sup>27)</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황제서(黃帝書)』는 『소문』 왕빙 주석을 가리킨다.

조헌가(趙獻可)는 『의관(醫貫)』 「내경십이관론(內經十二官論)」(1617)에서 “횡격막의 아래에 위(胃)가 있는데 음식을 받고 담아서 부숙(腐熟) 시킨다. 그 왼쪽에는 비장이 있는데 위(胃)와 막(膜)을 공유하여 그 위에 붙어있다. 그 색깔은 말의 간처럼 적자(赤紫)색이고 그 형태는 칼, 낫[刀鎌]과 비슷하다. 소리

를 들으면 비장이 활동하는데, 활동하면 위(胃) 속의 음식물을 갈 듯이 부수므로 음식이 곧 소화된다.”<sup>28)</sup>고 하였다. 조헌가는 비장과 위(胃)이 막으로 닿아있다는 점, 그 형태가 칼, 낫과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학입문』을 계승하면서도 비장이 횡격막의 아래에 위치한다는 점, 비장의 색깔, 비장이 활동하는 조건 등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이중재(李中梓)는 『의종필독(醫宗必讀)』(1637)에서 “비위(脾胃) 토(土)에 속하여 모두 밭 전(田)자를 가지고 있다. 위(胃)는 정중앙에 위치하므로 전(田)자가 가운데에 있으나 비장은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므로 전(田)자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sup>29)</sup>고 하였다. 이중재는 비장과 위의 공통 속성(土)과 인체 내 위치를 비(脾)와 위(胃)의 글자를 통해 설명하였으나, 형태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몽요(何夢瑤)는 『의편(醫編)』 「장부설(臟腑說)」(1751)에서 “위(胃)는 횡격막의 아래에 있고, 그 상부의 좌측에 비장이 있고 형상이 칼, 낫[刀鎌]과 비슷하다. 잘 움직여서 음식을 잘게 부수어 소화시킨다.”<sup>30)</sup>고 하였다. 하몽요는 조헌가의 견해를 따라 비장이 횡격막 아래에 있다고 하고, 이천의 견해를 따라 칼, 낫과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고세징(顧世澄)은 『양의대전(瘍醫大全)』(1760)에서 “비(脾)라는 글자는 낫[卑]는 것이다. 위의 아래에 있어서 위기(胃氣)를 보조하여 오곡을 소화시킨다.”<sup>31)</sup>라고 하고, 이형(李濛)은 『신경통고(身經通考)』 「신경답문이(身經答問二)」에서 “비장(脾臟)은 돕는다는 뜻이다. 태창(太倉)을 감싸서 위기(胃氣)를 돕는다[裨]. 심장과 폐장 아래에 위치하므로 낫다[卑]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 태음(太陰)은 습토(濕

25) 李穡.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91. p.340. “扁似馬蹄, 廣三寸而長有五寸(形扁似馬蹄, 又如刀鎌). 膜連胃府, 重二斤(三兩), 而散膏半斤.”  
 26) 李穡.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91. p.339. “脾居中脘一寸二分, 上去心三寸六分, 下去腎三寸六分, 中間一寸二分, 名曰黃庭.”  
 27) 章潢. 圖書編(文淵閣四庫全書 vol.971). 臺北. 商務印書館. 1971. p.16. “黃帝書云 脾形象馬蹄, 內包胃脘, 象土形也.”

28) 趙獻可. 醫貫. 서울. 도서출판 경담. 1993. p.3. “膈膜之下有胃, 盛受飲食, 而腐熟之. 其左有脾, 與胃同膜, 而附其上. 其色如馬肝赤紫, 其形如刀鎌. 聞聲則動, 動則磨胃, 食乃消化.”  
 29) 李士材. 醫宗必讀(中國醫學大成續集 v.30).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65. “脾胃屬土, 俱從田字. 胃居正中, 田字從中, 脾處于右, 田亦偏右.”  
 30) 何夢瑤. 醫編(續修四庫全書. 1025. 子部·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p.212-213. “胃在膈膜之下, 其上之左有脾, 形如刀鎌, 能動而磨食, 使消化.”  
 31) 顧世澄. 瘍醫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121. “脾者, 卑也. 在胃之下, 裨助胃氣, 以化穀也.”

土)라서 피와 같은 종류이므로 비장이 피를 감싸고 있다.”<sup>32)</sup>고 하였다. 고세징과 ‘비(脾)’라는 글자에 비장이 심장과 폐장의 아래에 낮게[卑] 위치한다는 뜻을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형은 고세징의 해석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胃氣)를 돕는다[裨]는 뜻도 내포되어 있음을 추가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형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참고로, 허준(許浚)은 『동의보감』 「비장」(1592)에서 “비장의 형상은 말발굽을 닮고 안으로 위완(胃腕)을 싸고 있어서 토(土)의 형상을 닮았다.”<sup>33)</sup>, “비장의 길이는 1척이고, 태창(太倉)을 가리고 있다. 태창이란 위(胃)의 상구(上口)이니, 즉 중완혈(中腕穴)이다.”<sup>34)</sup>라고 하였다. 허준은 이천과 이고의 학설을 동시에 수용하였다.

일본 서적 중 『침구발취대성』(1699)과 『침구중보기』(1749)에 실린 비장도에서 “또한 조롱박과 같다.”<sup>35)</sup><sup>36)</sup>고 하여 비장의 형태를 중국, 한국의 서적과 다르게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문헌을 통해 비장의 형태는 왕빙이 처음으로 말발굽을 닮았다고 설명하였고, 이천은 비장이 넓적하면서 칼, 낫[刀鎌]을 닮았다는 의견을 왕빙의 설명에 처음으로 덧붙였다. 그 이후로 조현가의 『의관』, 하몽요의 『의편』, 허준의 『동의보감』 등 여러 서적에서 이천의 설명을 두루 인용하였다. 다만 일본 서적 중 일부에서 조롱박을 닮았다고 설명하였다. 비장의 길이는 『난경』에서 처음으로 5촌으로 설명하였으나, 이고는 도가의 영향을 받아 그 길이를 2배(1척)로 설명하였다.

### 3. 비장도 30종에 나타난 비장의 묘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

앞서 비장도 30종에 대해 전체 형태, 종횡비, 하단의 모양, 중간 부위의 요철 등 4가지 형태인자로 분석·비교함으로써 비장도에 변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문헌에 나타난 비장의 형태, 길이에 대한 언급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비장도 30종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1) 비장은 무엇을 닮았는가?

비장의 하단은 『침구취영』 비장도(그림 1)<sup>37)</sup>에서 칼끝처럼 예리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침구취영』 오장육부지도(五臟六府之圖, 그림 2)<sup>38)</sup>에 마찬가지로 칼끝처럼 예리하게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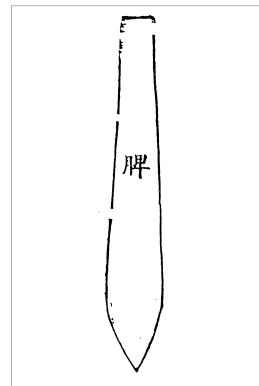


그림 1. 『침구취영』 비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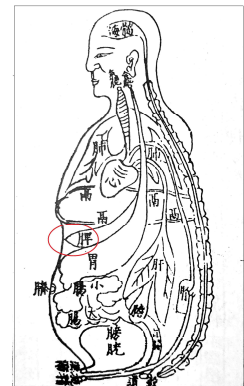


그림 2. 『침구취영』 오장육부지도

『침구취영』의 오장육부지도(그림 3)와 『의학입문』의 장부도(그림 4)<sup>39)</sup>를 비교하면, 『침구취영』 오장육부지도에는 좁고 상대적으로 예리하게 표현된 것에 반해, 『의학입문』 장부도(臟腑圖)에는 좁고 둥글게 표현되어 있다.

비장의 모양을 칼, 낫[刀鎌]과 같다는 설명은 현

32) 李濂. 身經通考(珍本醫籍叢刊 중).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4. p.18. “脾, 裨也. 掩乎太倉, 裨助胃氣也. 居心肺之下, 故從卑. 太陰濕土, 與血類, 故裹血.”

33) 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번역.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7. p.394. “脾形象馬蹄, 內包胃腕, 象土形也.”

34) 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번역.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7. p.394. “脾長一尺, 掩太倉. 太倉者, 胃之上口也. 卽中腕穴也.”

35) 오카모토잇보코(岡本一抱子). 침구발취대성. 大阪. 出版科學綜合研究所. 1978. p.38. “如又壺盧.”

36) 本郷正豊. 침구중보기(鍼灸醫學典籍大系 v.17). 大阪. 出版科學綜合研究所. 1978. p.17. “如又壺盧.”

37) 高武. 침구취영(續修四庫全書 子部 醫書類 v.99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p.554.

38) 高武. 침구취영(續修四庫全書 子部 醫書類 v.99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p.536.

39)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91. p.27.

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근거하면, 이천의 『의학입문』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침구취영』 비장도에서 비장의 하단이 칼끝처럼 예리하기에 비장의 모양이 칼, 낫[刀鎌]을 닮은 것 같다. 이천이 비장의 모양이 ‘말발굽과 같다’는 『난경』의 설명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할 때, 『침구취영』 비장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추측한다.

다만 『의학입문』에서 『침구취영』 또는 저자인 고무(高武)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천이 『침구취영』 비장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보다는 당시 민간에 떠돌던 설명을 이천이 『의학입문』에 채록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런데 이천의 설명과 달리 『의학입문』 장부도에는 등글게 표현된 까닭은 무엇일까? 『의학입문』 「습의규격(習醫規格)」에 따르면 의학입문의 본문은 이천의 문인인 노정화(盧廷和) 등이 맡았지만 그림은 조카인 이시사(李時思)가 따로 맡았기에<sup>40)</sup> 장부도를 그릴 때 이천이 본문에서 언급한 비장의 모양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3. 『침구취영』 오장육부지도

40)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91. p.2398.



그림 4. 『의학입문』 장부도

#### (2) 비계(脾系)는 비장도에 없는가?

간장도, 폐장도, 심장도, 신장도에 각각 간계<sup>41)</sup>, 폐계<sup>42)</sup>, 심계<sup>43)</sup>, 신계<sup>44)</sup>가 묘사되어 있으며, 『침구취영』의 오장육부지도(그림 1)에 비록 간계, 폐계, 신계의 명칭은 없지만, 간, 폐, 신으로부터 심장과 연결된 사계(絲系)가 있다<sup>45)</sup>.

『침구취영』의 오장육부지도(그림 2, 3)를 살펴보면, 비장에서 심장으로 이어진 사계(絲系), 즉 비계(脾系)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침구취영』 비장도(그림 1)에는 비계(脾系)를 표기하지 않았다.

표 6에 따르면, 비장도 30종 중에서 비장도의 중간 부위가 평평하게 묘사된 그림은 16종이며, 비장도의 중간 부위가 오목하게 묘사된 그림은 10종이며, 중간 부위가 볼록하게 묘사된 그림은 2종이다.

- 41) 조학준.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의 비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pp.31-54.
- 42) 조학준.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肺臟圖 29종의 비교. 한국의사학회지. 2016. 29(1). pp.11-31.
- 43) 조학준.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의 비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 30(3). pp.55-76.
- 44) 조학준. 腎臟圖의 형태요소와 그 變異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8. 31(1). pp.23-42.
- 45) 조학준.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의 비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 30(3). pp.55-76.

비장도의 중간 부위가 오목하게 묘사된 그림들은 비장과 비계를 구분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침구중보기』의 비장도는 발바닥 모양을 닮아 오목한 부위의 위쪽이 아래쪽보다 더 넓다. 따라서 위쪽을 비계로 인식했다고 해석하기보다, 전체를 비장으로 인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게다가 비장의 모양이 발바닥을 닮았기에 말발굽과 비슷하다는 왕빙의 설명과 부합한다.

비장도의 중간 부위가 볼록하게 묘사된 그림들(『편작맥서난경』, 『화한삼재도회』)은 비계는 생략하고 비장만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두 서적의 비장도는 서양배를 닮고 비장의 중횡비도 1.9:1 ~ 1.0:1에 해당하는데, 『난경』「42년」에서 언급한 비장의 길이 5촌, 너비 3촌(중횡비 약 1.7:0)에 가장 가까운 그림들이다. 따라서 두 서적의 비장도에는 비계는 묘사되지 않고 비장만 묘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비계가 묘사된 비장도에서 비장은 어느 부위인가?

비장도 10종(『침방육집』, 『복수단서』 『영추주증발미』, 『침구발체대성』, 『의종금감』, 『침구중보기』, 『경락상법』, 『전오령제록』, 『경맥도고』, 『침구원추』)에서 중간 부위가 오목한 것은 비장과 비계를 구분하는 경계를 표현한 것이다. 또 간장도, 폐장도, 심장도, 신장도에서 오장의 계(系)가 해당 장기의 ‘위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균일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계(系)의 특징적인 형태, 즉 가늘고 길게 묘사된 점을 고려하면 비장도 10종에서 아래 부위는 비장을, 위 부위는 비계를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오목한 정도가 비교적 뚜렷한 그림들, 즉 『영추주증발미』, 『전오령제록』, 『경맥도고』, 『경락상법』의 비장도는 비장과 비계를 구분하려는 의도가 더 잘 드러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학입문』의 장부도(그림 4)에 심장으로부터 폐, 간, 신으로 이어진 肺系, 肝系, 腎系로 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심장으로부터 비장으로 이어진 사계(絲系)에 대해 횡격막 위쪽에 ‘脾系’로 표시되어 있고, 횡격막 아래쪽으로 위장의 앞쪽으로 ‘비(脾)’가 별도

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의학입문』「장부조분·비(脾)」에서 비장의 대락(大絡)<sup>46)</sup>을 “비장에 대락(大絡)이 있는데, 그 계(系)는 횡격막 아래 정중앙으로부터 약간 왼쪽 옆구리 쪽으로 치우쳐 있다. 위장의 위쪽에서 위장의 포락(包絡), 즉 위장의 대락과 서로 붙어있다.”<sup>47)</sup>고 설명하였는데, 비장의 ‘대락’을 ‘비계(脾系)’로 해석<sup>48)</sup>한다. 비계(脾系)는 위장의 위쪽에서 위장의 포락(包絡), 즉 위장의 대락과 서로 붙어있다.

한편, 비장도 30종을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판단하면, 비장도 중간 부위가 평평하게 묘사된 비장도 16종(표 6 참고)은 비장도 전체를 비장으로 인식하였거나, 비장과 비계를 구분할 의도가 없다. 이처럼 비장도 전체를 비장으로만 인식함으로 인해 이천은 비장의 모양을 갈, 낫[刀鎌]과 닮았다고 부연하였고, 그 오류를 답습한 서적(『유경도익』, 『의종필독』 등)이 적지 않다.

### (4) 비장도의 비장(脾臟)은 비장(spleen)인가, 췌장(脾臟, pancreas)인가?

앞서 비장도에 묘사된 그림은 ‘비장과 비계가 함께’ 표현된 것이라고 새롭게 해석하였다. 또한 이천(李樾)이 이런 비장도를 오인하여 갈, 낫[刀鎌]과 같다는 설명을 처음으로 덧붙인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런데 『의학입문』에서 비장의 모양을 “말발굽과 비슷하고 또 갈, 낫[刀鎌]과 같다.”<sup>49)</sup>는 설명에서 ‘말발굽’과 ‘갈, 낫[刀鎌]’은 모양이 서로 비슷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다. 즉, 말발굽 모양은 비장을 가리키고, 갈, 낫[刀鎌] 모양은 췌장을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다. 육안 해부학의 관점

46) 경맥에서 갈라진 큰 낙맥(絡脈)을 대락(大絡)이라고 한다. 12경맥과 임맥, 독맥을 합하여 14경맥에 각 1개와 비경의 대포혈(大包穴)에서 갈라진 낙맥을 비장의 대락이라고 한다. 이 밖에 위장의 대락을 포함하면 대락의 개수는 모두 16개가 된다.

47) 李樾.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91. p.340. “脾之有大絡, 其系自膈下正中, 微著左脇, 於胃之上, 與胃胞絡相附.”

48) 李樾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51.

49) 李樾.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91. p.340. “形扁似馬蹄, 又如刀鎌”

에서 비장의 모양이 삼각형 또는 난원형에 가깝고, 췌장의 모양은 길쭉하므로, 말발굽 모양은 비장(지라, spleen)을, 칼, 낫의 모양은 췌장(이자, pancreas)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장의 모양이 칼, 낫[刀鎌]과 같다는 이천의 설명은 『침구취영』 비장도를 직접 보거나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입수한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한다. 게다가 육안 해부학의 관점에서 췌장은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비장과 달리 울퉁불퉁해서 칼, 낫처럼 매끄럽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장도 내의 비장의 모양은 길쭉하고 매끄러운 칼, 낫[刀鎌]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말발굽을 닮았다. 따라서 비장도 내의 비장은 길쭉하면서 울퉁불퉁한 췌장(脾臟, pancreas)이 아니라, 삼각형 또는 난원형의 매끄러운 비장(脾臟, 지라, spleen)을 묘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편<sup>50)</sup>에 비중을 더 둘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르면, 비장도에서 췌장(脾臟, pancreas)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형태적 특징에 근거한 결론은 한의학에서 비(脾)를 중요한 소화기관의 하나로 여기는 기능적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비장도에서 길쭉하게 묘사된 비장은 췌장과 십이지장이 함께 묘사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수입할 때 한의학에서 인식하는 비(脾)를 비장(脾臟, 지라, spleen)으로 잘못 번역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해석과 주장은 비장의 기능이 소화를 담당한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비장(脾臟, 지라, spleen)이 적혈구를 파괴하고 혈액을 저장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한의학의 ‘비통혈(脾統血)’과 어느 정도 맥락이

닿는다고 볼 수 있다.

### (5) ‘산고(散膏)’는 비장의 외부에 있는가, 내부에 있는가?

이천은 『의학입문』에서 산고(散膏)의 기능을 “산고(散膏)는 혈액을 감싸는 것을 주관하니, 각 장(臟)의 혈액(血脈)은 모두 그것, 즉 산고가 주관하는 것이다.”<sup>51)</sup>라고 처음 설명하였고, 이후 『침방옥집』, 『유경도익』 등 여러 서적에서 그 설명을 인용하였다.

『의학입문』 「장부문(臟腑門)」에 따르면, 비통혈(脾統血), 즉 비장이 혈액을 통섭(統攝)하여 경맥(經脈)으로 운행하게 하며 밖으로 넘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맡는 것으로 비장의 ‘산고(散膏)’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천은 ‘산고(散膏)’가 비장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의학입문』의 「장부총론」과 「장부조분」을 해설한 『의학집요』에서 “重二斤而散膏半斤이라 함은脾의 전체 중량이 二斤인데 半斤은 기름덩이이고 나머지는 살덩이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半斤의 기름이 나와서 골절과 피부와 모발에 散布해서 골절이 윤회해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모발이 매끄러워지니...”<sup>52)</sup>라고 하였는데, 산고(散膏)의 위치가 비장의 ‘외부’임을 주장하였다.

비장도 30종 중 오직 『침구원추』와 『침구중보기』의 부기(附記)에서 산고(散膏)를 언급하였으나 위치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중국의 『침구원추』 비장도의 부기(附記)에서 “비장의 형태는 매끄럽고 윤기가 있다. 기름 덩어리(膏脂), 즉 산고(散膏)가 (비장의) 바깥쪽을 싸고 있다. 위장에 붙어있어 (위장이) 위아래로 움직임에 따라 음식을 잘게 부수어 소화 시킨다.”<sup>53)</sup>고 하여 散膏가 ‘비장의 외부’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일본의 『침구중보기』 비장도의 부기(附記)에서 “안에 산고(散膏) 반 근이 있다.”<sup>54)</sup>고 하여 산고(散膏)가 ‘비장의 내부’에 있다고

50) 정형상, 백유상, 김도훈, 정창현, 장우창. 『醫學入門』 五臟系에 대한 解剖學的 考證.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 20(1). p.171. “여기서 비를 지라(spleen)로 보는 이유는 『醫學入門』에서 肝系를 이와 상대적으로 오른쪽 옆구리 쪽에 붙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자(pancreas)도 胃의 뒤쪽에 위치하여 이와 脾를 중복되게 인식할 수도 있으나 일단 가장 좌측으로 치우친 지라(spleen)로 보았다. 이는 脾의 기능을 고려하여 고증한 것이 아니라 『華佗先生內照圖』의 「內照圖」 가운데 第一, 第二의 그림들에서 표현된 脾의 구조적 위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51)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91. p.340. “散膏主裹血, 各臟血脈, 皆其所主也.”  
 52) 송점식. 의학집요. 대전. 주민출판사. 2006. pp.372-373.  
 53) 황룡상.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青陶出版社. 2003. p.32. “脾之形有滑澤. 膏脂■裹於外. 貼胃, 乘上下之動, 以磨化其食也.”

해석할 수 있다.

(6) ‘산고(散膏)’는 지만(脂膜)인가?

『화타내조도(華陀內照圖)』(1273)의 장부도(그림 5)<sup>55)</sup>에서 『침구취영』의 오장육부지도(그림 2, 3)와 달리, 위장 위쪽 면에 큰 쌀알 모양의 구조물을 묘사하고 그것을 ‘지만(脂膜)’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5. 『화타내조도』의 장부도

그 후 『의성계제』(1573) 음식화생도(飲食化生圖, 그림 6)<sup>56)</sup>와 『의학입문』 장부도(그림 4)에서 지만(脂膜)을 표시하였으며 안 등<sup>57)</sup>은 ‘지만(脂膜)’을 ‘위장의 부속 지방 조직’으로 해석하였다.

『의학입문』 「장부조분·비(脾)」에서 ‘만지(漫脂)’에 대해 “위장의 포락, 즉 대락은 비장의 위쪽에서 위장과 서로 나란히 지나면서 그 주위를 엮고 질런한 기름 덩어리, 즉 ‘만지(漫脂)’가 두루 펼쳐져 있다. … 식도 입구(咽) 아래는 위안(胃脘), 즉 식도이며, 위안(胃脘) 아래는 즉 위장의 위쪽 입구이다. … 분

문(賁門)은 횡격막과 서로 맞닿는 사이에 있고, 또한 ‘만지(漫脂)’가 서로 싸고 있다.”<sup>58)</sup>고 설명하였다.

『의학입문』의 장부도(그림 4)에 표시된 ‘지만(脂膜)’의 위치와 『의학입문』 「장부조분·비(脾)」의 ‘만지(漫脂)’에 대한 설명을 비교하면, ‘지만(脂膜)’과 ‘만지(漫脂)’는 동일한 조직을 서로 다르게 부른 명칭이며, 지만(脂膜) 또는 만지(漫脂)는 위장 바깥쪽의 부속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난경』에서 처음 언급한 ‘산고(散膏)’는 『화타내조도』에서 처음 등장하는 ‘지만(脂膜)’과 같은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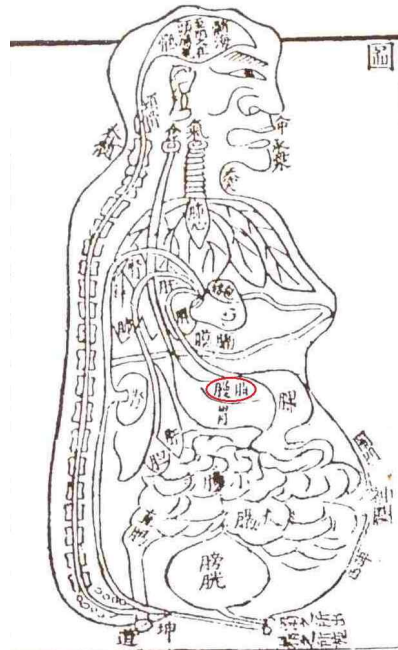


그림 6. 『의성계제』 음식화생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장도 30종 중에서 비장과 산고(散膏)의 관계를 부기(附記)에서 언급한 서적은 『침구원추』, 『침구중보기』에 불과하며, 장부전도 중에서 ‘산고(散膏)’를 표시한 서적은 아직 발견하지

54) 本郷正豊. 침구중보기(鍼灸醫學典籍大系 v.17). 大阪. 出版科學綜合研究所. 1978. p.17. “內散膏半斤”  
 55)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 北京. 靑島出版社. 2003. p.16.  
 56) 周禮. 醫聖階梯(vol.1, 卷之一).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p.7.  
 57) 안승현, 김기왕. 동의보감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의 형태 형성 경위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 31(4). p.50.

58)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91. p.340. “其胃之包, 在脾之上, 與胃相並, 結絡周回, 漫脂遍布. … 咽下, 胃脘也. 胃脘下, 卽胃之上口也. … 其門膈膜相貼之間, 亦漫脂相包也. 若胃中水穀腐熟 則自幽門而傳入於小腸, 故言太倉之下口爲幽門.”

못하였다. 따라서 장부도를 통해서는 산고(散膏)가 지만(脂膜)과 같은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의학입문』 「장부조분·비(脾)」에서 ‘산고(散膏)’와 ‘만지(漫脂)’를 각각 언급<sup>59)</sup>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천은 산고(散膏)를 만지(漫脂) 또는 지만(脂膜)과 동일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둘 사이의 관계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으로 분석, 비교한 결과를 종합하면,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비장도가 30종으로 분화, 모사(模寫)되는 과정에서 『난경』, 왕빙의 주석 등 여러 문헌에 영향을 받아 꾸준히, 또한 의도적으로 변형되었다.

문헌의 내용과 비장도를 비교하면, 비장도는 마땅히 비장과 비계(脾系), 산고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장도를 인용, 모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림에서는 비장과 비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비장으로 인식하거나 산고(散膏)의 존재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에 어떤 서적에서는 비장과 비계를 구별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다른 서적에서는 비장 자체를 정확히 묘사하고, 또 다른 서적에서는 비장과 함께 산고(散膏)를 부기(附記)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문헌과 장부도를 모두 검토해 보아도 산고(散膏)가 ‘지만(脂膜)’과 같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비장도 30종에서 비장도의 구성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였으며, 그에 따라 비장도가 여러 변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결론

이상으로 명당장부도(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비장도(脾臟圖) 30종을 4가지 형태인자, 즉 전체 형태, 종횡비, 하단의 모양, 중간 부위의 요철을 기준으로 분석, 비교함으로써 비장도의 변이(變異)와 비장도 내 구성 내용을 밝혔다. 다만, 장부전도에서 기원한 『장부증치도설인경경(臟腑證治圖說人鏡經)』, 『의학원시(醫學原始)』의 비장도는 공통적인 형태인

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종횡비 등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전체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긴 칼(뿔족한 하단), 긴 막대기(등근 하단), 가늘고 길쭉한 조롱박(중간 부위가 잘록함), 서양배(중간 부위가 볼록함), 발바닥(상단과 하단이 비대칭)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서 긴 칼(『침구취영(鍼灸聚英)』 등), 긴 막대기(『유경도익(類經圖翼)』 등)을 담은 그림이 21종으로 가장 많고, 서양배 모양의 그림은 『편작맥서난경(扁鵲脈書難經)』,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의 2종, 발바닥 모양의 그림은 『침구중보기(鍼灸重寶記)』, 『경락상법(經絡相法)』의 2종이다.

종횡비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4.0:1 이상인 그림은 20종(『침구취영』 등)으로 가장 많고, 1.9:1 ~ 1.0:1인 그림은 『편작맥서난경』, 『화한삼재도회』 2종이다. 특히 두 서적의 비장도는 서양배를 닮고 비장의 종횡비도 1.9:1 ~ 1.0:1에 해당하는데, 『난경』 「42년」에서 언급한 비장의 길이 5촌, 너비 3촌(종횡비 약 1.7:0)에 가장 가깝다.

하단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좁고 예리하게 표현된 그림은 7종(『침구취영』 포함), 좁고 평평하게 표현된 그림은 19종(『영추주증발미(靈樞註證發微)』, 『유경도익』, 『침구원추(鍼灸原樞)』 등), 넓고 평평하게 표현된 그림은 2종(『편작맥서난경』, 『화한삼재도회』)이다.

중간 부위의 요철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평평하게 표현된 그림은 16종(『침구취영』 등)으로 가장 많고, 오목하게 표현된 그림은 10종(『침방육집』, 『복수단서』 『영추주증발미』, 『침구발체대성』, 『의종금감』, 『침구중보기』, 『경락상법』, 『진오령제록』, 『경맥도고』, 『침구원추』), 볼록하게 표현된 그림은 2종(『편작맥서난경』, 『화한삼재도회』)이다.

둘째, 『침구취영』, 『영추주증발미』, 『유경도익』, 『침구취영』의 4가지 계열 특성을 고려하여 비장도 30종에 대해 그 계열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른 장부분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계열의 속성이 교차로 나타난다.

셋째, 문헌과 비교한 결과, 당시 의가(醫家)들이 비장도를 모사(模寫)할 때 『난경』, 왕빙(王冰)의 주

59)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91. p.340.

석(注釋)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전체 형태, 중형 비, 하단의 모양, 중간 부위의 요철 등을 다르게 묘사하였다. 당시 해부를 통한 직접관찰이 없었음에도 다른 장부분도와 마찬가지로 비장도 역시 문헌에 근거하여 꾸준히, 의도적으로 변형되었다고 추측한다.

넷째, 문헌과 비장도를 서로 비교하면 비장도는 마땅히 비장과 비계, 산고(散膏)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비장도 30종 중에서 중간 부위를 오목하거나 볼록하게 표현하여 비장과 비계를 명확히 구별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은 12종에 불과하며, 산고(散膏)는 전혀 묘사되지 않았다.

다섯째, 비장도에서 비장과 비계가 함께 표현된 것이라면, 비장도에 표현된 비장의 모양이 『난경』의 ‘말발굽을 닮았다.’는 설명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의학입문』에 비장의 모양이 ‘칼, 낫[刀鎌]과 같다’는 설명은 비장과 비계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침구취형』의 비장도를 직간접적으로 입수하여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측한다.

여섯째, 육안 해부학 관점으로 분석하면, 비장도 내의 비장은, 길쭉하면서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췌장(pancreas)’이 아니라, 삼각형 또는 난원형에 가까운 비장(지라, spleen)이 묘사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일곱째, ‘산고(散膏)’를 언급한 비장도는 『침구원추』, 『침구중보기』에 불과하다. 일부 비장도 내의 ‘산고(散膏)’는 『화타내조도』 등의 장부전도(臟腑全圖)에 표기된 ‘지만(脂曼)’과 관계가 있는 듯하나 구체적인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 ‘산고(散膏)’를 췌장으로 인식한 근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명당장부도에서 기원한 30종 장부분도를 형태인자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 방법과 결과는 향후 『동의보감』 오장도가 중국의 장부도로부터 기원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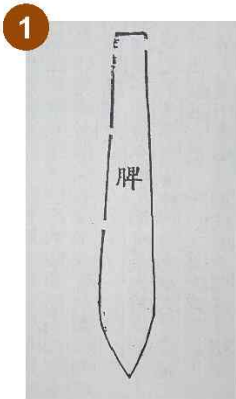
## References

1. 高武. 鍼灸聚英(續修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v.99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2. 顧世澄. 瘍醫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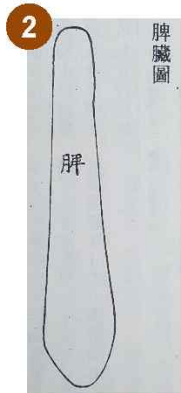
- 1987.
3.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 24(2).
4. 노민희 외 4인. 인체해부학. 서울. 고문사. 1991.
5. 梁丘子 撰. 施博爾 原編. 修真十書黃庭經內景玉經註(道藏 vol. 4). 北京. 文物出版社. 文物出版社. 1988.
6. 李濂. 身經通考(珍本醫籍叢刊 中).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7. 潘萍, 郭义, 王东强. “明堂图”源流简考. 针灸临床杂志. 2008. 24(5).
8. 本郷正豊. 鍼灸重寶記(鍼灸醫學典籍大系v.17). 大阪. 出版科學綜合研究所. 1978.
9. 송점식. 의학집요. 대전. 주민출판사. 2006.
10. 안승현, 김기왕. 동의보감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의 형태 형성 경위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 31(4).
11. 오카모토잇보코(岡本一抱子). 鍼灸拔萃大成. 大阪. 出版科學綜合研究所. 1978.
12.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3. 李杲. 脾胃論(李東垣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4. 이명철, 박경남, 맹웅재.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臟腑圖에 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06. 20(2).
15. 李士材. 醫宗必讀(中國醫學大成續集 v.30).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16.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17.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91.
18. 정혁상, 백유상, 김도훈, 정창현, 장우창. 『醫學入門』五臟系에 대한 解剖學的 考證.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 20(1).
19.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의 비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20.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29

- 종의 비교. 대한한의학회지. 2017. 30(3).
21.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肺臟圖 29종의 비교. 한국의사학회지. 2016. 29(1).
22. 조학준. 腎臟圖의 형태요소와 그 變異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8. 31(1).
23. 趙獻可. 醫貫.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3.
24. 周禮. 醫聖階梯(vol.1, 卷之一).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25. 扁鵲(秦越人) 撰. 王九思 등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26. 何夢瑤. 醫編(續修四庫全書. 1025. 子部·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27. 한봉재. 동의보감의 圖像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28. 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번역.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범인문화사. 2017.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0.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31.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NAVER. [cited at August 15, 2019]. Available from: URL:<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606&cid=51006&categoryId=5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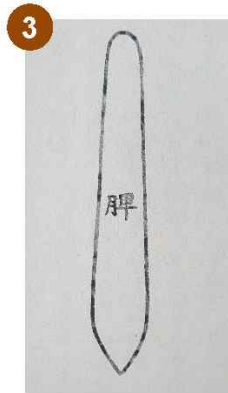
그림 7. 『침구취영』계열의 비장도



1 『鍼灸聚英』(1529) “脾臟圖”



2 『古今醫統大全』(1556) “脾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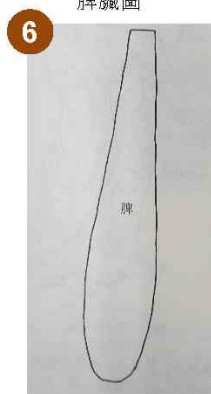
3 楊繼洲『鍼灸大成』(1601) “脾臟圖”



4 吳文炳『醫家赤胤益辨全書』(1605 전후) “脾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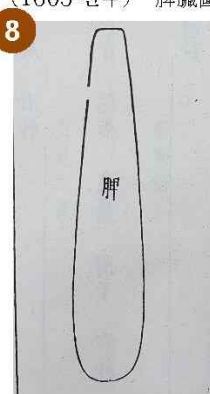
5 『鍼方六集』(1618) “脾圖”



6 『願生微論』(1618) “脾臟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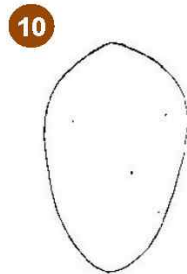
7 『福壽丹書』(1624) “脾臟之圖”



8 『丹臺玉案』(1636) “脾臟形”



9 『臟腑證治圖說人鏡經』(1662) “脾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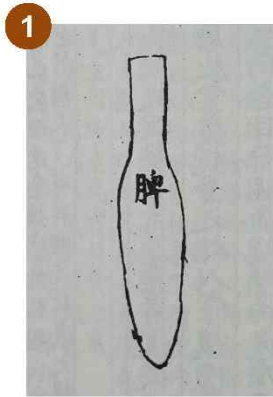


10 『扁鵲脈書難經』(1817) “脾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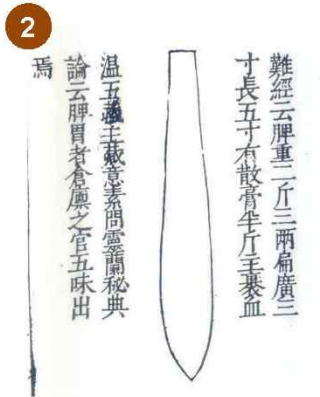


11 『身經通考』(清代) “脾臟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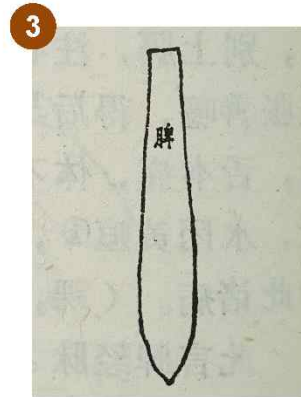
그림 8. 『영추주중발미』계열의 비장도



『黄帝内经灵枢注證發微』(1580)  
 “脾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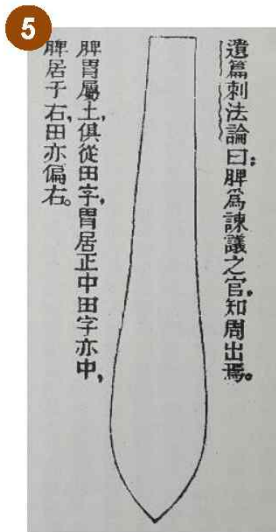
『三才圖會』(1607)  
 “脾圖”



『經絡考』(1609)  
 “脾經圖”



『和漢三才圖會』(1712)  
 “脾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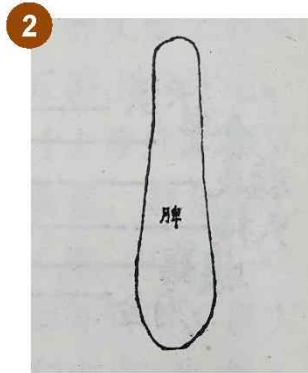


『醫部全錄』(1725)  
 “脾臟形象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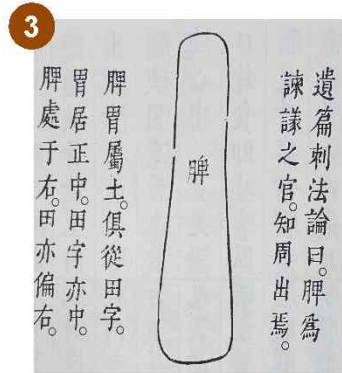
그림 9. 『유경도익』계열의 비장도(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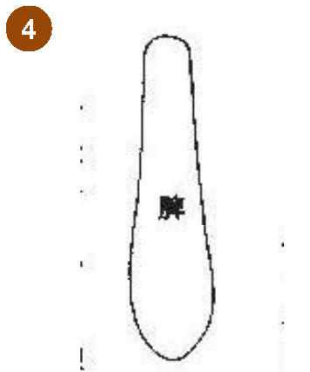
『類經圖翼』(1624)  
“脾臟圖”



『經絡滙編』(1628)  
“脾臟之圖”



『醫宗必讀』(1637)  
“脾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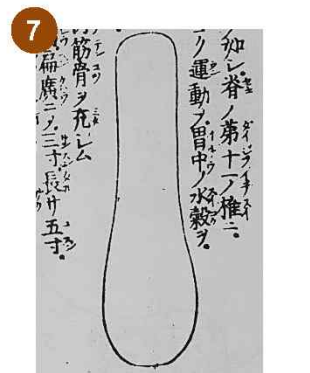
『藏府指掌圖書』(明代)  
“脾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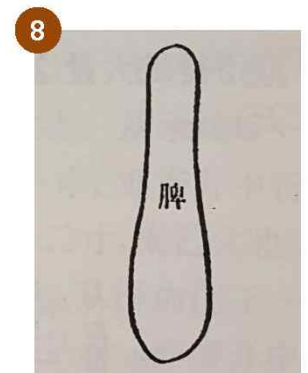
『醫學原始』(明代)  
“脾胃包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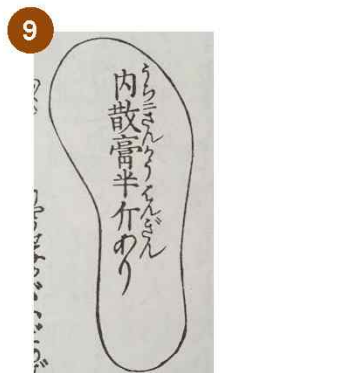
『(新編)鍼灸要法指南』(1686)  
“脾臟圖”



『鍼灸拔萃大成』(1699)  
“脾臟圖”



『醫宗金鑑』(1742)  
“脾臟圖”



『鍼灸重寶記』(1749)  
“脾臟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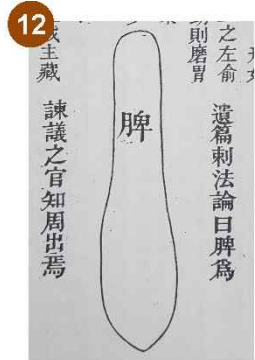
그림 10. 『유경도익』계열의 비장도(2/2)와 『침구원추』계열의 비장도



『瘍醫大全』(1760)  
 “脾臟圖”



『傳悟靈濟錄』(1869)  
 “脾臟圖”



『經脈圖考』(1878)  
 “脾臟圖”



『經絡相法』(清代)  
 “脾臟圖”

I.d. 『鍼灸原樞』계열의 脾臟圖



『鍼灸原樞』(1573)  
 “脾臟形象之圖”